

2025년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

| 2025년 1월 2일(화) 오후 2시 ~ 4시 30분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 프로그램 □

13:30 등록 및 접속

14:00 인사 말씀

- 최완규 상임공동대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박원곤 원장(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14:10 발표 및 토론

- 사회: 조동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 발제
 1.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망 - 정치·군사·남북관계
이호령 책임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
 2.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망 - 경제·사회
김미연 선임연구원(KDB 미래전략연구소)
 3.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망 - 대외 환경
이상현 수석연구원(세종연구소)
 4. 남북 교류협력 현황과 대응 방향
홍상영 사무총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토론
 1. 박원곤 원장(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 이철 선임연구원(평화재단)
 3. 김진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4.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평화포럼)

[발제문 1]

2025년 북한 정치·군사·대외 평가와 전망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특징

1) 당창건 80년, 2026년 9차 당대회 대비 체제 결속 집중

- 새로운 슬로건 및 새로운 대내외 정책 전무
- “2025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와 같은 식상한 표어와 함께 제8기 11차 전원회의 일자, 7개 의정 설명
- 지난 3년간 연말 전원회의 의정 비교시 의정 ①에서 대외, 대남, 군사 부분의 비중과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내부 정치사상강화 및 지방발전 20x10정책과 건설 살림집, 알곡정책 성과 중심으로 설명
- <표-1>에서 보듯이, <지방발전 20x10정책>을 창당 이래, 건국 이래 처음으로 추진되는 전례없는 새역사를 창조하는 정책으로 지방발전정책 실현에 군인 건설자들이 전위에 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
- 당 중앙검사위원회가 새시대 당규율건설노선관철과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와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지적하는 위상 강화

<표-1> 코로나 종식/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 연말 전원회의 비교

제8기 6차 전원확대회의 2022.12.26.~31.(6일) * 세 번째 신년사 대체 연말 전원회의 '19.12.28~31(4일), '21.12.27~31(5일)	제8기 9차 전원확대회의 2023.12.26.~30.(5일)	제8기 11차 전원확대회의 2024.12.23.~27.(5일)
① 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와 23년도 사업계획 ② 조직문제 ③ 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3년도 국가예산안	① 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4년도 투쟁방향 ②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하여	① 24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5년도 투쟁방향 ② 당 중앙검사위원회 24년도 사업정형 ③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

④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 ⑤ 새시대 당건설의 5대노선	③ 당 중앙검사위원회 23년 사업정형 ④ 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4년도 국가예산안 ⑤ 현 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⑥ 조직문제	과업에 대하여 ④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실시에 대하여 ⑤ 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5년도 국가예산안 ⑥ 당내기구사업 ⑦ 조직문제
--	---	--

2) 전년 대비 대외/대남 메시지 최소화를 비롯해 ‘군사 →경제’로 옮겨가는 매우 대비적인 행보

- 국제체제 평가: 아시아판 나토, 신냉전체제, 북중러 vs 한미일 → 자주세력권(반미 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입자가 급격히 약화되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로의 견인 필요성 강조

*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외관계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와 기대

- 대남 평가: 북한은 작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제1의 적대국가’, ‘교전국 관계’, ‘적대적 두 국가’, ‘대남/통일 기구 폐지’로 규정하며 대남 정책전환을 천명한 이후 대남 정책 전환에 대한 평가는 없음. 대신, 한국을 "미국의 반공전초기지"로 전략됐다고 평가

* ‘적대적 두 국가’, ‘통일 폐지’에 대한 정책추진이 내부적 성과보다는 반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 차단, 다시 반미의 대적관의 연장선상에서 대남정책 추진 9차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군대는 핵위기 신속대응, 유사시 핵무력 등을 동원해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대남 군사적 대응조치 강화 요구

- 대미 평가: 작년에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을 “가장 반동적 국가”로 언급하며 “한미일 동맹을 침략적인 핵군사블럭으로 팽창”하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위협을 강조 → 해법으로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천명

*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북 대화가능성 여부 등 상황변화시, 미국이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수용한다면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을 오픈 ➡ 특이하게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정책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음. 9차 전원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거론하며, △핵무기 증산 토대 구축 및 '24년 핵무기생산계획 전개 강조 △'24년 3개 정찰위성 추가발사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 제고, 미진 과업 빠른 기간 내 집행 △무인무장장비·전자전수단 개발 △민방위무력의 훈련 내실화 등 요구. 22년 6차 전원회의 직후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 및 검수사격 후 증정식을 했으나, 24년 11차 전원회의 직후 김정은은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 준공식 참석(12.28),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시찰(12.31) 등 매우 대비적인 행보를 보임

* 2023년 제8기 9차 전원회의 대외부분:

“강대강·정면승부의 대미대적투쟁원칙 일관하게 견지”, “고압적·공세적 총강경정책 실시”

“변화발전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책략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는 함.”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지지면대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 공동행동, 공동투쟁 과감히 전개”

“미국과 추종세력의 핵전쟁위협소동에 대처,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절대불변 대적대응의지 재천명”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

- 대외 관계: 북한의 존엄과 국익을 존중하는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적극 도모 → 러시아를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지향성을 시사

3) <표-2>에서 보듯이 8차 당대회 마지막 해에 내각·당 주요 인사 지난 3년 중 최다 변동

- 박태성(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러시아 방문) 신임 내각 총리를 비롯해 최선희, 노광철, 리열길, 김정식은 북러 관계발전 및 러시아 파병 등 외교·군사 부분 위상 강화 반영
- 체제유지관련 감독, 감시 기관 인물 승진: 리히용(당중앙검사위원장), 방두섭(사회안전장)
-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지방 20x10정책> 실천 강화
- 기존 김덕훈 내각 총리는 당 비서로 김재룡 전 내각 총리는 당중앙검사위 부위원장으로 순환 인사가 이뤄짐

<표-2> 지난 3년 연말 전원회의 조직 인선 비교

	22년 제8기 6차	23년 제8기 9차	24년 제8기 11차
당	정치국 후보위원(3) 선전선동부장(주창일)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히용) 당중앙검사위 부위원장 (김상건)	정치국위원(3) 정치국 후보위원(1) 비서국(3) 전문부서(6) 도당책임비서(2)	중앙위 위원(6): 정명수, 윤정호, 노광철, 리히 용, 송준설, 강명철 중앙위 후보위원(11) 정치국위원(6): 리영길, 최선희, 노광철, 김정관, 리히용, 최동명 정치국 후보위원(2): 방두섭, 김철원 비서(3): 최동명, 김덕훈, 리히용 당중앙검사위(4): 리히용, 김재룡, 김형식, 강명철 부장(3): 리히용, 김덕훈 김재룡 도당책임비서(1): 김철삼
정	내각부총리(2) 화학공업상(김철하) 경공업상(김창석) 품질감독위원장(조석철)	내각부총리(2)	내각총리: 박태성 내각부총리: 김정관 자원개발상: 권성환 산업상: 김영식
군	박정천 주요직위를 리영 길로 이동(당비서, 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노광철, 방두섭, 김정식 당중앙군사위 위원

4) 연말 전원회의 결과가 신년사를 대체해 오던 기조와 형식 변화

- 예년보다 전원회의 결과가 일찍 보도됐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개최 보도 없이 5일 간 회의를 진행한 후 지난 12월 29일 종합 보도를 통해 개최 시기와 내용을 일괄적으로 발표하며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남

■ 2025년 전망과 관련해 주요 고려사항

1)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앞세운 국방력강화 최우선주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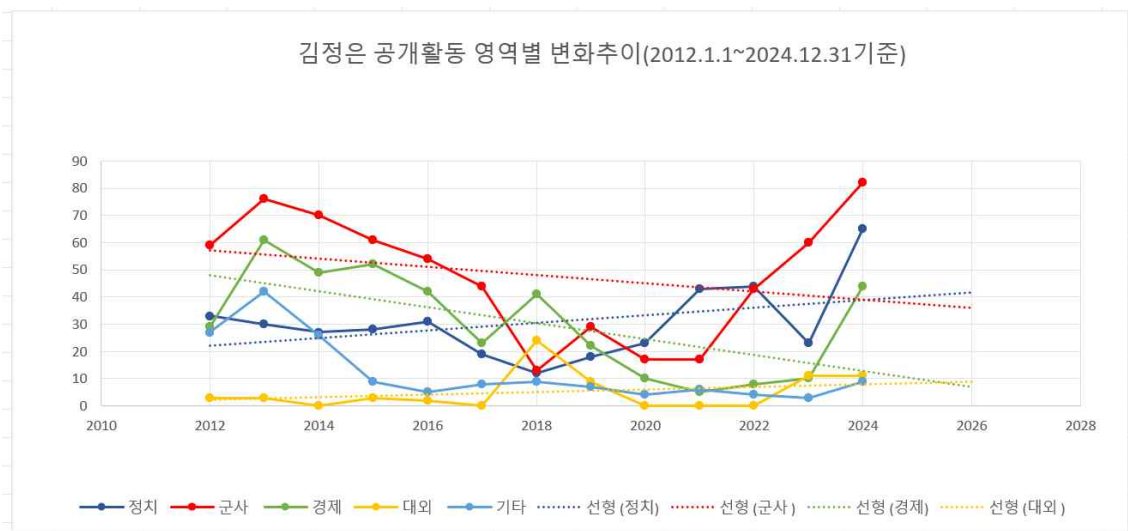
- 2024년은 <표-3>에서 보듯이金正은의 공개활동이 집권 이래 군사영역에서 가장 많

지만, 정치영역의 공개활동도 최대치임

- 더욱이 <지방발전 20x10정책> 발표이후 8차 당대회 이후 2024년은 경제영역에서 공개활동도 최대치를 보이고 있음

<표-3> 김정은 집권 이후 분야별 공개활동(2012~2024)

연도	정치	군사	경제	대외	기타
2012	33	59	29	3	27
2013	30	76	61	3	42
2014	27	70	49	0	26
2015	28	61	52	3	9
2016	31	54	42	2	5
2017	19	44	23	0	8
2018	12	13	41	24	9
2019	18	29	22	9	7
2020	23	17	10	0	4
2021	43	17	5	0	6
2022	44	43	8	0	4
2023	23	60	10	11	3
2024	65	82	44	11	9



- 김정은 분야별 공개활동의 추이선 변화를 보면, 2025년~2026년 사이 군사 > 정치 > 경제 > 외교 영역의 우선순위가 정치 > 군사 > 외교 > 경제 영역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교차선이 발생
-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중단 여부 및 러시아 북한군 파병 대가, 북한 당창건 80주년, 8차 당대회 마무리 및 9차 당대회 준비 등을 앞둔 시점으로 북한 체제내구력에 변동이 올 수 있는 시점

이기도 함

☞ 제8기 11차 전원회의가 대외대남 메시지는 최소화시키되, 내부 메시지(지방발전 20x10정책, 평양 1만세대 살림집 완공, 수해지역 복구과제 완수로 농촌문화도시 새 변혁 등) 중심으로 진행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됨

2) 우크라이나 전후 북한 외무, 군부의 역할과 임무 증대

- 트럼프 신행정부가 시작되는 2025년 1월 20일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파병군의 사상자 숫자는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가와 처리 문제는 북한 외무성과 국방성, 총참모부로 돌아갈 것임
- 만약,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장기화 된다면 북한의 부담과 초조함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장기화 될수록 북한은 비준이 발효된 신조약 4조에 따라 군수물자와 파병을 계속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는 병력부족에 따른 북한의 파병이 필요한 만큼 기술협력과 지원을 북한이 협상방법에서 사용한 살라미 전술로 제공할 가능성이 큼

☞ 러북 신조약이 발효된 만큼 발효 이후 조약 파기는 1년 이후에나 가능하기때문에 푸틴은 적어도 러우 전쟁이 트럼프 신행정부 1년 안에는 종식될 것이라는 계산을 할 것이므로 최대한 북한을 병참기지로 활용하고 1년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이 원하는 대로 종식되면 이후 북한을 팽하고 한국과 관계개선을 해도 문제 없다고 계산할 것임

⇒ 북한 또한 러시아로부터 군사협력, 군사기술, 주요 무기 제공 등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적기로 2025년을 적극 활용

- * 우주, 반항공, 해군력 강화에 기술 및 지원 확보를 통해 가시적 효과 극대화 추구 예상
- 특히, 2025년은 8차 당대회 이후 국방발전5개년계획 및 신무기발전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9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을 평가하며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해인 만큼 대러밀착을 통해 군사, 에너지, 기술,

경제 등의 성공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극대화할 것임

3) 러시아 파병에 따른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치사상, 통제 한층 더 강화

-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체제에게 가시적 성과보다는 체제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큼
- 김정은의 통치자금의 증대 이외에 파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상자 증대 및 ‘자주’, ‘적’, ‘충성’의 개념 혼란에 따른 정치사상 논리개발과 통제력 강화가 내부적으로 더 요구될 것으로 예상
- 더욱이, 러시아 파병, DMZ 지역의 장벽쌓기와 지뢰매설,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 수해복구, 10X20정책 등에 북한군 동원 → 역설적으로 한반도 긴장고조는 북한에 부담. 회색지대 도발로 긴장을 주기적으로 조성하되 긴장고조를 통한 한반도 위기는 회피

⇒ 따라서 2025년은 러시아 기술이전과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도발과 회색지대 도발을 복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긴장고조는 하되, 한반도 위기로까지의 발전 가능성은 회피

2025년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

: 조선노동당 제6기 제11차 전원회의 내용 중심으로<경제·사회 분야>

김미연 선임연구원
KDB 미래전략연구소

I. 개관

II. 2024년 평가

1. 경제 전반 현황
2. 북한 보도 주요 내용과 해석

III. 2025년 전망

1. 북한 보도 주요 내용
2. 해석과 전망

I. 개관

□ 북한 당국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24.12.23~27)하여 '24년 분야별 사업평가를 진행하고 '25년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

* 김정은은 집권 직후인 '12년에는 전례에 따라 공동사설(당보, 군보, 청년보)로 신년사를 대체했으나, '13~'19년간에는 육성 신년사로 변화를 시도, '20년부터는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같음

□ '25년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21~'25년)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8차 당대회('21.1.5~10)에서는 정비·보강 전략에 의한 경제운영 정상화,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분야별 과제 수행 방안 제시
 - 경제제재 등에 따른 한계를 인식, 대규모 개발이 아닌 정비·보강을 통해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을 목표
- 제8기 9차 전원회의('23.12.26~30)에서는 '24년을 '경제발전 5개년 계획('21~'25년) 목표 달성을 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표현
 - 성과가 미진한 분야나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
 -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내각을 중심으로 기존부터 진행 중이던 12개 분야 핵심과제의 지속 추진을 강조

□ 북한 당국이 계획 시 제시한 목표와 경제 전반 현황 정보를 토대로 '24년 실적을 평가하고, '25년을 전망

- 북한 당국이 발표한 공식매체 보도내용('24.12.29)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국정운영 방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
 - 다만, 당 전원회의 결정사항 내용만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므로 해석의 한계 존재
- '25년은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중심으로 계획할 것으로 예상

II. 2024년 평가

1 경제 전반 현황

□ 국내외 파악 통계 지표상으로는 예산수입·지출, 경제·산업별 성장률, 대외무역 등이 부진한 경향을 보이다가 '23년을 기점으로 수치상 반등하는 모양새

○ (예산수입·지출) 코로나19 및 대북제재 지속으로 '21년부터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모두 급감, '24년은 예년에 비해 증가

【 북한의 예산 수입·지출 추이 】

(단위: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예산수입	8.7	4.1	4.3	3.7	4.1	3.1	3.2	3.7	4.2	0.9	0.8	1.0	2.7
예산지출	10.1	5.9	6.5	5.5	5.6	5.4	5.1	5.3	6.0	1.1	1.1	1.7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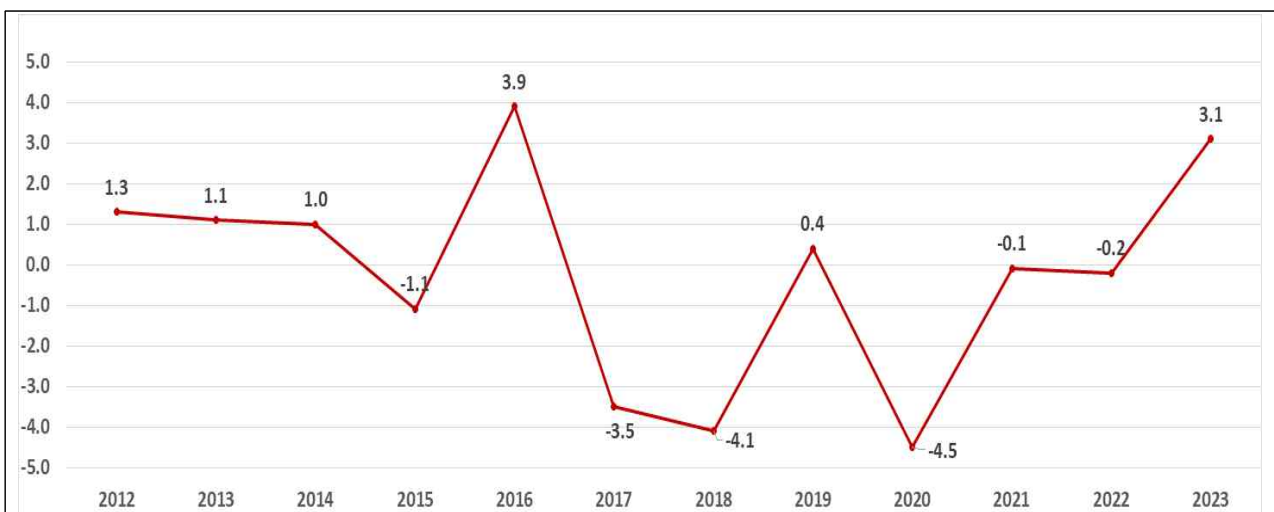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최은주(2024), 『정세와 정책』, 371호, p.7.

○ (경제성장률) '1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하다가 '23년 3.1%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되었다고 추정, '24년이 변화의 기로

* '16년의 일시적 플러스(3.9%) 성장 제외

【 북한의 경제성장률 】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주요산업 성장률) '17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하던 제조업*은 '23년에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 건설업은 큰 폭으로 상승

* 특히 중화학공업은 UN 대북제재로 인한 원료·설비 수입이 차단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 경공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침체 지속

- '23년에 12개 주요 산업 분야의 생산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행을 독려한 결과, 일정의 성과* 거양

【 경제계획 관련 주요 성과 평가 】

일시	내용	비고
'24.4.9	1/4분기 경제계획 목표 달성 선전	압연강재(128%), 질소비료(105%), 석탄(109%), 화물수송(104%), 시멘트(104%), 통나무(105%), 수산물(103%), 소금(154%) 등
'24.6.27	경제 분야별 상반기 계획 목표 달성 선전	압연강재(131%), 석탄(107%), 유색금속(115%), 화물수송(108%), 통나무(104%), 시멘트(104%)
'24.7.2	상반기 경제실적 평가 (제8기 10차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상반기 경제 상황이 작년 동기 대비 확연한 상승세라고 호평
'24.8.5	7월 경제계획 목표 달성 선전	석탄(103%), 흥남비료연합(107%), 남흥청년화학연합(115%) 외 제철.기계.건자재.전력.채취 분야는 비교적 간략하게 언급
'24.10.4	3/4분기 경제계획 목표 달성 성전	기간공업 분야 등에서 경제계획을 초과 수행, 정비보강 및 생산 활성화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반적인 농사 작황이 좋아 결실을 기대한다고 평가

자료: 통일연구원, 「KINU 북한동향(2024년 상반기)」 및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참고하여 작성

- 평양 5만호 살림집 건설 등* 북한 자체보유 자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건설업은 계속적으로 두각

* 검덕지구(2.5만 세대), 화성지구 1·2단계(각 1만 세대) 건설 및 서포지구, 강동온실농장 등 주요 건설 현장 공사

【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

(단위: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제조업	1.6	1.1	0.8	-3.4	4.8	-6.9	-9.1	-1.1	-3.8	-3.3	-4.6	5.9
중공업	0.2	1.0	0.5	-4.6	6.7	-10.4	-12.4	-2.3	-1.6	-3.7	-9.5	8.1
경공업	4.7	1.4	1.5	-0.8	1.1	0.1	-2.6	1.0	-7.5	-2.6	5.0	0.8
건설업	-1.6	-1.0	1.4	4.8	1.2	-4.4	-4.4	2.9	1.3	1.8	2.2	8.2
서비스업	0.1	0.3	1.3	0.8	0.6	0.5	0.9	0.9	-4.0	-0.4	1.0	1.7

자료: 한국은행

- (대외무역) '23년 대외무역 총액(對中 무역)은 '19년 무역량의 82% 수준을 회복했으나 상승세에 제동

- '24년 상반기는 수출액이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감소, 전년 동기 대비(10억 달러 상회) 10억 달러 하회 수준으로 감소 (자료 : KITA)

* 단,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플라스틱 제품 다량 수입

【 북한의 對中 수출입 추이 】

(단위: 억 달러)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수출	24.8	29.1	28.4	24.8	26.3	16.5	1.9	2.2	0.5	0.6	1.3	2.9
수입	35.3	36.3	40.2	32.3	34.2	36.1	25.3	28.8	7.1	6.2	14.0	24.3
합계	60.1	65.5	68.6	57.1	60.6	52.6	27.2	30.9	7.6	6.8	15.3	27.2

자료: 통계청 및 해관총서

- (식량 생산량) '24년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478만 톤 기록

- 북한 지역 기상 여건이 5월까지는 생육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환경이었으나, 집중호우(7월), 고온(8~9월)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 감소

【 북한의 식량 생산량 】

(단위: 만 톤,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생산량	467.6	480.6	480.2	451.2	482.3	470.1	455.8	464.0	439.8	469.2	450.5	482.0	478.0
증감률	-	2.8	△0.1	△6.0	6.9	△2.5	△3.0	1.8	△5.2	6.7	△4.0	7.0	△0.8

자료: 농촌진흥청

【 북한의 작물별 생산량과 기상 여건 】

(단위: 만 톤)

구분	'24년 생산량	'23년 대비 증감량	기상 여건
쌀	215	4	5~6월 기상 여건 양호했으나, 7월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 침수 피해 발생, 8~9월 고온으로 등숙(登熟) 불량
옥수수	161	△9	5~6월 강우량이 적정하여 초기생육이 양호했으나 7월 일부 지역 집중호우 및 8~9월 고온으로 옥수수 등숙(登熟) 불량, 생산량 감소
감자·고구마	54	△4	생육 중·후기(봄감자: 6월, 여름감자·고구마: 6월, 8~9월) 가뭄·고온으로 감자와 고구마의 형성·비대(肥大) 불충분
밀·보리	28	6	1월 온난화로 월동(越冬)이 유리했으며, 5월까지 적당한 기온·강수량으로 수량 증가
콩	18	△1	5월 적정강우, 7월 집중호우, 8~9월 고온으로 생산량 감소
기타 잡곡	2	-	-

자료: 농촌진흥청

□ ‘5개년 계획(’21~’25년)’ 달성의 결정적 한해로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전년과 유사하게 ‘24년 목표였던 12개 분야 핵심과제 추진 결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한 반면, 성장 실적 등에 대해서는 미언급

【 북한 자체발표 12개 분야 핵심과제 추진 성과 및 경제분야 성장 실적 】

12개 핵심과제	’24년 성과 (’23년 대비)	’23년 성과 (’22년 대비)	경제분야	’24년 성과	’23년 성과 (’20년 대비)
알곡	107%	103%	국내총생산	-	1.4배
전력	101%	100%	삼화철		3.5배
석탄	110%	100%	선철		2.7배
질소비료	103%	100%	압연강재		1.9배
압연강재	127%	102%	공작기계		5.1배
유색금속	106%	131%	시멘트		1.4배
통나무	104%	109%	질소비료		1.3배
시멘트	101%	101%	-	-	
천	101%	101%			
수산물	101%	105%			
철도화물수송량	108%	106%			
주택건설	-	109%			

자료: 노동신문(2023.12.31., 2024.12.28.)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23년에 발표한 산업 분야별 구체성과와 달리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
- 여름철 수해 복구작업에 집중하고 해당 분야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한 것을 감안하면 타 분야 성과는 대체로 미진했을 것으로 예상

* “올해 일부 지역들에 큰물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당은 적시적인 결심을 내려 방대한 복구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비상체계를 가동”

【 북한 자체발표 산업 분야별 계획 대비 성과 】

분야	’24년 성과	’24년 계획
농업	■ 풍년 ■ 관개시설 복구 2단계 공사 완료(’24.4월)	■ 농촌경리의 기계화, 관개체계 정비, 간석지건설 추진 ■ 농촌 적극 지원, 양정규율 강화, 밀 가공공장 현대화, 밀 가공기술 개선
기계	■ 금성트랙터공장 2단계 개보수	■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락원기계종합기업소 등 주요 기계공장 현대화

경공업	-	■ 소비품 및 기초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경공업공장 등 현대화 ■ 잠업, 상업, 서비스업 등 개선 ■ 학생들의 필수용품 품질 개선
수산업	-	■ 원양어업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 생산 증대
건설	■ 평양시 화성지구 1만 세대, 검덕지구 주택 건설	■ 농촌주택건설 적극 추진
금속	■ 항해제철연합기업소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 건설	-
과학 기술	■ 기간공업, 경공업 및 농업과의 연계	■ 첨단과학기술 발전계획 설정, 과학 연구역량 집중
교육	-	■ 교육내용 및 방식개선을 통한 교육수준 제고
보건	-	■ 사회주의 보건 시책 시행
지역 개발	■ 지방발전 20x10정책의 완벽한 첫 실체 구현 - 실포 수산양식사업소 건설 등 ■ 시, 군 농촌지역 환경개선 ■ 평북, 자강도, 양강도 수해복구를 통한 지역 환경개선	■ 과학기술도서관, 학생교복공장, 신발공장, 표준약국, 대학, 극장 등 건설

□ '24년 성과는 다수의 회의*를 거쳐 계획성 있게 추진되었다고 자평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해 강조

* 8기 9차 전원회의('23.12.26~30), 10차 전원회의('24.6.28~7.1), 19차 정치국 확대회의('24.1.23~24), 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24.7.29~30)

- 지방발전 20x10 정책 및 12개 중요 고지 분야별 계획 추진, 수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회의 소집
- 재해방지 능력의 미숙함, 건설사업 추진에서의 결점 발생 등을 상세히 지적*했다고 보도

* “성과보다 세부적이고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결점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올바른 태도”

□ '23년 전원회의와 마찬가지로 확인 불가능한 통계를 제시하며 경제·산업 분야 성과 달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와는 괴리

- 12개 분야 핵심과제 추진 성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3년 대비 모두 100%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입증이 곤란

- 경제 분야 성장실적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23년의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부진한 성장을 거뒀을 가능성
- 집중호우(7월) 및 고온(8~9월) 현상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쌀, 옥수수, 감자, 고구마, 콩, 기타 잡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다만 밀, 보리의 경우 생육 조건이 양호하여 생산량 다소 증가
- '23년과 달리 '24년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함에 따라 북·중관계 개선을 통한 교역 규모 확대는 주춤
 - 중국과의 육로 무역 재개, 수출 품목군 확대를 통한 교역 규모 확대 등에서 진전이 없었던 상황

Ⅲ. 2025년 전망

1 북한 보도 주요 내용

- (현실 인식) 도전과 난관이 엄혹한 '24년을 지나 당 창건 80주년 및 9차 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
 - 유례없는 어려운 형세가 지속될 것이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목표 계획을 추진
 - 5개년 경제계획 수행 완료 및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준비 필요
- (중점 과제) 기간산업 지속 발전, 평양시 주택 건설사업 완료 및 '지방발전 20x10 정책' 범위 확대, 재해방지 대책 마련 등을 강조
 -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 전력, 기계, 석탄, 철도운수 등 타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 발전이 중요하다고 언급
 - '25년 내 화성지구 4단계 주택 건설을 끝으로 평양시 5만 세대 주택 건설사업 계획 완료
 - 아울러 함경남도 검덕지구 주택 건설 완료 이후 기타 지역 농촌 주택 건설 추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 발전사업 가속화
 - 신포시 수산양식사업소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시설 조성
 - 지방발전정책 추진 계획 관련, 별도 의제*로 상정하고 추가적인 추진 목표를 제시('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정식 포함 제외)
 - *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과업에 대하여」
 - 전국 시·군에 3대 필수 대상(보건시설, 복합형문화중심*, 양곡관리시설) 추가 건설
 - *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 재해방지를 위한 중앙 지휘체계 및 질서 확립, 사전 대책 마련 등

□ (경제관리 개선) 경제관리 체계를 중앙 통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강구를 제시하고 계획화 및 가격사업 개선을 강조

- 북한 당국의 경제관리를 위한 통제적 기조는 8차 당대회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25년에는 계획 및 가격에 대한 통제에 집중

【 '21년 8차 당대회 이후 경제관리 개선 계획 】

'22년	'23년	'24년	'25년
내각의 경제조직자적 기능 역할 강화	국가 관리기구체계 실리적 정비	내각 중심의 국가행정경제사업계획 및 질서 강화	경제관리체계 중앙 통제적 방식으로 개선
계획화 방법 개선 사업 심화	기관 일꾼들의 사업 태도 개선	양정 규율 엄격화	
경제활동의 정규화, 규범화	사회주의법률제도 개선 강화	-	-

자료: 전원회의 개최 관련 노동신문 일자별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교육 분야 강조)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

*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 별도 의제 상정

- 학용품, 교구, 교육기자재 등을 북한 당국이 지원함으로써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요구
- 10년 내 전국의 모든 학교 신축, 개보수를 통해 도·농간 교육수준
격차를 축소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확립 지시

【 '21년 8차 당대회 이후 교육 분야 제시 계획 】

'22년	'23년	'24년	'25년
국가 부담으로 교복, 학용품, 가방 공급	-	교육 내용 및 방법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 (연구형 교수·학습 방법 도입 등)	학교 신축, 개보수 및 교육기자재 공급
수재교육체계 강화를 통한 수재 육성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
지방 및 농촌 교사 역량 강화			장애인 교육지원체계 확립

자료: 전원회의 개최 관련 노동신문 일자별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농업, 경공업 및 기타 분야 관련 계획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

- 농업 생산량 증대, 기초식품 및 필수 소비품 질 개선을 포함하여 수산업 발전 등 언급
- 치료예방산업 및 의료 봉사 질 제고를 통한 방역토대 강화
- 어린이 및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확대
-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 분야에서의 성과 도모

2

해석과 전망

□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민생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미지 부각에 중점

- '24년 한 해 동안 김정은은 경제 분야 공개활동* 대부분을 지방발전 정책 추진 성과 점검 등을 위해 진행

* 지방공장 등(19건), 수해복구(9건), 주택건설(3건), 온실농장(1건), 기타(1건)

- 지방공업공장(김화·성천·함주·재령군, 삼지연·신포·원산시 등)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정도를 일일이 파악하여 필요사항 지시, 지원
- 특히 김정은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8.31)를 개최하고 지방공장건설 외 보건시설, 과학기술문화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 필요성을 강조
- 아울러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주요 수해 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 지시
 - 농촌 문화도시로 새롭게 건설, 피해복구 기간 수재민 가정의 어린이·학생, 노약자 등 평양 거주 및 교육 지원, 재해방지 방법 등
- 애민 의식 강조를 통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미진한 분야의 경제 성과보다 과시하기 좋은 건설 분야 성과를 부각

□ **계획화, 가격사업 개선 등 경제관리 개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시사**

- '22년부터 전국에 도입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판매소 다변화에 따라 곡물시장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추세를 가속화

* 시장이 발달한 도시의 경우 각 동마다 3개의 양곡판매소가 운영되는 반면 군급 지역에는 읍, 리마다 1개의 양곡판매소가 설치

- 양곡판매소 중심으로 곡물 판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장마당에서의 개인 곡물 거래는 점진적으로 제도권 내로 흡수 중
- 특히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의 곡물 판매를 통제함으로써 돈주 등 개인 판매상은 양곡판매소를 오히려 안전지대로 인식

- 북한 당국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노동자 월급 인상 조치('24.4월)에 따른 곡물 가격 인상 및 환율 상승 등 부작용 상쇄를 위해 개입 강화

- '24년 하반기부터 장마당 거래 쌀 가격이 상승했으나 양곡판매소 거래를 통해 시장가격 폭등 저지 효과를 경험
-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심각성을 인지, 환율 안정에 적극적인 개입* 지속

* 내부 강연자료에서 환율 상승을 일으키는 유연비어들에 대한 단속 예고 등('24.9월)

□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범위 확대 추진은 이미 기존의 계획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

- 대북제재 지속으로 인해 자재 및 설비 확보의 어려움,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오히려 시·군 지방의 부담을 가중해 온 것이 사실
- 장기적으로 공장 가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운영 자금 등을 온전하게 부담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 당분간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낮고 북·러 밀착에 따른 중국의 소극적 자세가 지속되는 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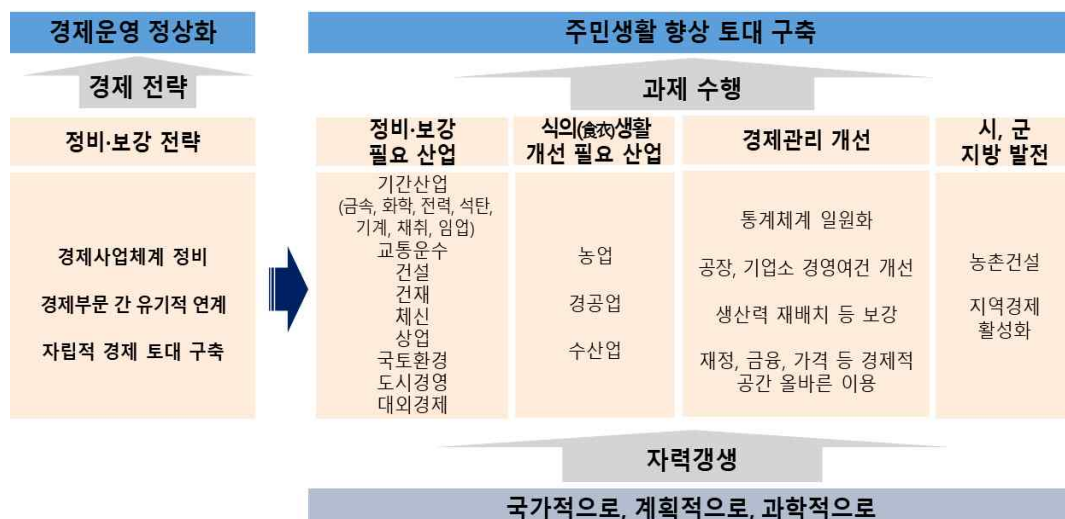
□ 교육 환경개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의 성공 여부는 자원 조달이 관건

-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
 - 러시아로의 무기 판매 대금, 파병 대가 수령 등을 통해 자원 조달
- 다만, 러·우 전쟁 종결 시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 '25년에는 8차 당대회('21년)에서 제시한 경제 분야 전략에 따른 분야별 과제 수행의 일정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한 정비·보강 전략은 북한 당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 기간산업, 식의생활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시·군 지방 발전 정책 추진을 병행함으로써 민심 달래기에 주력
 - 대내 경제 전략만으로 경제난 해결은 여전히 불가능하나 '그럭저럭 버티기'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중앙집중적 통제를 통한 경제관리 개선 시도는 한계 노정

【 '21년 8차 당대회 제시 경제 분야 전략 및 과제 】



【 '21년 8차 당대회 제시 경제 분야 전략 및 과제 - 연간 계획 】

구분		2022년 (제8기 4차 전원회의)	2023년 (제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024년 (제8기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025년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일시		'21.12.27~31(5일간)	'22.12.26~31(6일간)	'23.12.26~30(5일간)	'24.12.23~27(5일간)
현실 인식		2021년 : 엄혹한 난관	2022년 : 혹독한 국난	2023년 : 어려운 고비에 직면 (방역, 경제제재, 흉작)	2024년 : 도전과 난관이 엄혹 2025년 : 당 창건 80주년 / 9차 당대회
경제 운영 정상화	정비· 보강 전략	✓ 5개년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 구축 ✓ 생산 활성화 및 정비보강사업 강화	✓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 구축 ✓ 전반적 분야 생산 활성화 및 정비보강계획 완성 ✓ 자립원칙 철저히 구현	✓ 8차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점령 승산 확정 ✓ 전 부문, 단위에서 5개년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 확보	✓ 5개년계획 완결 및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준비 추진
주민 생활 향상 토대 구축	정비· 보강 필요 산업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 ✓ 채취, 임업, 국토관리, 도시경영	✓ 12개 중요 고지 ✓ 편의봉사, 도시경영	✓ 12개 중요 고지 힘 집중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표준 본보기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락원기계종합 기업소 등 중요 기계공장 현대화) ✓ 국토관리, 편의봉사, 도시경영	✓ 금속, 화학, 전력, 기계, 석탄, 철도운수 ✓ 국토관리, 환경보호, 재해 최소화
	식의 생활 개선	✓ 농업 집중, 농촌 지원 강화 ✓ 경공업(소비품 생산, 식료품 가공 기술, 교복/학용품/가방 공급) ✓ 수산업	✓ 경공업 ✓ 수산업	✓ 농촌 적극 지원 ✓ 농업생산력 증대(농촌경리 기계화, 관개체계 완비, 간석지 건설 지속 추진) ✓ 경공업(밀 가공공장 등 현대화, 밀 가공 기술 개선, 교복/가방/신발 공급) ✓ 수산업(원양어로)	✓ 농업생산량 증대 ✓ 경공업(기초식품 및 필수소비품 질 개선, 어린이 및 학생 대상 지원) ✓ 수산업
	경제 관리 개선	✓ 내각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 역할 강화 ✓ 계획화 방법 개선 사업 심화 ✓ 경제활동의 정규화, 규범화	✓ 국가 관리기구체계 실리적 정비 ✓ 기관 일꾼들의 사업 태도 개선 ✓ 사회주의법률제도 개선 강화	✓ 국가행정경제사업계획 및 질서 강화(내각이 경제 명맥을 살리고 목적지향적 경제 발전 견인) ✓ 양정 규율 엄격화	✓ 경제관리 체계 개선(중앙 통제적) ✓ 계획화 및 가격사업 개선
	시, 군 지방 발전	✓ 화성지구 1만 세대 주택 건설 추진 지속 ✓ 지방이 변하는 시대 열기 ✓ 삼지연시 농촌마을 수준으로 농촌건설 * 사회주의 농촌테제	✓ 주택 건설 1순위 정책과제(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 새로운 3천 7백 세대 거리 추가 형성) ✓ 지방공업	✓ 상업, 급양 개선 ✓ 지방공업 공장 현대화 *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 군농업경영위원장들 방청	✓ 화성지구 4단계 주택 건설(평양시 5만 세대 주택 건설 완성) ✓ 검덕지구 주택 건설 완성 ✓ 3대 필수 대상 건설(보건시설, 복합형문화 중심, 양곡관리시설) * 지방발전 정책에 정식 포함 제의 ✓ 바닷가양식사업소 추가 조성
기타		*	*	*	✓ 학교 신축, 개보수 및 교육기자재 공급 ✓ 도농 간 교육격차 완화 ✓ 장애인 교육지원체계 확립

[발제문 3]

2025 북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야: 대외 환경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1. 대외, 국제정세 인식 분석

-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23~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제8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
 - 본 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미·일·한 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빨력(블록)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략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¹⁾
- 2024년에 북한은 국익 증대와 국위선양의 견지에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평가
 - “원칙적인 대외정책적 립장과 투쟁방향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대표적이고 강력한 자주력량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다”고 평가
 - 이런 “준엄한 지역정세와 류동적인 국제관계 구도변화에 기민하고 령활하게 대응”하면서 “신성불가침적인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들을 믿음직하게 수호”했다고 자평
- 결론에서는 대외부문에서 당의 대외전략적 구상과 의도에 맞게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대외활동으로 혁명에 보다 유리한 대외적 국면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적 과업들이 제시되었다고 지적
 - 미국의 변함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과 강화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천명”
- 다만, 북한은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바, 구체적인 내용은 1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 제시될 대북정책의 향배를 보고 대응의 방향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구체적인 강경책을 드러내지 않고 모호성을 견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을시 최강경 대응 전략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

1) 『노동신문』, 2024.12.29.

-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대화와 핵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²⁾
- 한편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는 관계개선을 주장
 -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강조한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김정은은 2025년 5월로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영화를 구축하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대적인 외교적 고립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편승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반미연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
-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새로운 리스크를 제기
 - 첫째는 ICBM 재진입체 및 MIRV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 첨단 군사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 -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전수해 무기화한다면 이는 국제 안보는 물론 한반도 군사균형에도 게임 체인저가 될 위험이 큼
 - 둘째는 북한 지역내 유사시 러시아군이 자동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
 -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에 따라 북한의 역할이 러시아에게 더 중요해질 경우 러·우 전쟁 종결 이후 러·북 군사협력 모멘텀 상실 가능성 대신, 러·북 군사협력의 장기 공고화 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³⁾
 - 장차 한반도에서 한미동맹과 북러동맹이 맞서는 구도가 등장할 가능성도 예상 가능

2. 신냉전, 다극화 질서 속에서 생존 모색

- 북한은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 다극화 질서로 인식하고 현재의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2025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은데다 중국도 기본적으로 반미전선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없다고 판단
 -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리한 정세를 배경으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이후 협상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를 앞두고 축하편지를 보

2)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67), 2024.12.29.

3) 정성윤·김민성·백승준,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시사점과 대응 방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61, 2024.

내 “새해 2025년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원

-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 영용한 러시아 군대의 전체 장병들에게 자신과 조선 인민, 전체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에 ‘공화국 무력 장병’을 별도로 언급하고 새해를 ‘21세기 전승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북러 군사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 북한은 이미 2021년부터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시작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년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2022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세계정세 인식을 피력
- 진행형이었던 신냉전 도래가 “완전히 부활”했다는 완료형으로 전환된 것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
- 북한 외무성은 전쟁 발발 후 러시아를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출 - 서방세계가 러시아의 합법적 안보 고려를 무시하여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후 대규모 무기공급과 제재 등 반러시아 적대행위를 강화했다고 주장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방세계와 이에 대응하는 세력간 진영이 구축되었음을 주장

○ 김정은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은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라진 국제정세를 반영

- 그는 변화된 세계질서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고 믿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신냉전 담론을 통해 진영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핵보유 정당성을 주창
- 더불어 한미일을 삼국동맹으로 규정하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의 정당성을 진영 차원에서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정
-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 정세를 신냉전의 완전한 도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북한이 이러한 구도 속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
- 우선 현 정세는 과거 냉전이 내포하는 이념 결속, 진영 절연 등이 부재 - 미소의 냉전 시기와 달리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대립으로 치환하는 신냉전은 체제 차이 외에 이념적 정합성이 부족하여 지속에 한계
- 더불어 냉전 시기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가 보여준 절연성도 현 세계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미국과 중국이 경제 및 다분야에서 완전히 탈동조화하는 것도 불가능
-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중러가 지속성 있는 하나의 진영 혹은 ‘한 참모부’로 기능할지도 불확실 -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는 현 상황에서 결집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는 불신이 가득한 ‘편의에 의한 결합’ 관계이기 때문⁴⁾

-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발전-2024 전시회 연설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표명⁵⁾
 - 김 위원장은 현 정세를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으로 규정하고, 특히 미국이 북한의 급진적인 강세를 견제하고 추종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맹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국가 주변에 방대한 전략타격 수단들과 동맹국 무력을 전개해 놓고 군사적 압박과 도발의 수위를 극도로 높이고 있다”고 비판
 - 지금은 “조선반도에서 교전쌍방이 위험천만하게, 첨예하게 대치되어 각일각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상황”이며, “오늘날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극단한 정세가 결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 미국과는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지만 확인한 것은 초강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변하지 않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라고 주장
 - 결론적으로, 군사력의 충돌로 과열되고 있는 현 세계에서 “자위를 포기한 나라는 진정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으며 힘이 렬세한 나라는 기필코 폭제에 짓밟히게 되고 침략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면서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에 올인할 것을 시사
- 신냉전과 다극적 질서를 주장하는 북한의 인식은 최근 중국의 다극체제 질서 담론과 유사한 맥락을 공유
 -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현재의 국제질서가 본격적인 다극체제 질서로 이행했고 중국이 변화를 주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 실상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질서는 더 이상 미국이나 서구가 주도하기 어려운 다극적 모습을 노정
 - 2024년 금년 3월 4일 시작되어 3월 11일 끝난 중국 양회(兩會) 정부 업무 보고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달라진 대외정책 변화를 강조하며 기존 미국 중심의 단극 국제질서가 아닌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내놓으며 달라진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천명
 - 특히 정부 업무 보고에서 2023년도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에 크게 공헌하였고 국제 및 역내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
 - 이어 중국은 보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平等有序)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함께 미국과 서구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 언급
 - 다극적 국제질서 하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다수의 국가들과 손잡고 그동안 미국과 서구가 독점해온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하려고 시도 -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 중국을 연결하는 내러티브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발전구상(GDI)과 글로벌 안보구상(GSI)
 -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기간이던 지난 2021년 9월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글로벌 발전구상을, 2022년 4월 보아오(博鰲) 포럼 화상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안보구상을 제안
 - 그리고 2023년 3월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명 간의 공존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문명구

4) 박원근,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 ①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이슈브리핑 | 2023-02-27 (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1750&board=kor_issuebriefing).
5) 『노동신문』, 2024.11.24.

상(GCI)을 제안 - 이로써 발전 → 안보 → 문명으로 확장되는 중국의 3대 이니셔티브를 완성⁶⁾

- 미국과 서구가 독점해온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극적 질서로 전환함에 있어 중국 또한 러시아, 북한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 2025년 1월 20일, 심대한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 파편화된 국제질서의 도래를 배경으로 새로운 진영화 추세도 진행 - 글로벌 제도와 레짐, 거버넌스 약화 징후로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상충하는 국가이익을 충돌, 발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질서 상황
 - 이처럼 파편화된 국제질서에서 핵심 드라이버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갈등 같은 강대국 경쟁
 - 세계는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웨스트(Global West), 중·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이스트(Global East), 그리고 인도, 브라질 및 중간지대의 나머지 다양한 비서구 발전도상 국가들을 포함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삼분되는 양상
 - 현재 국제질서의 핵심은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 사이의 경쟁, 특히 미중관계 - 미중관계는 정치와 경제, 이념과 체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당분간 적대적 경쟁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경쟁적 ‘세 결집’(coalition building)을 적극 추진⁷⁾
 - 북한 또한 이러한 글로벌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에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에 편승하여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개인외교(personal diplomacy)를 통한 빅딜에 우선점을 두고 있음
 - 트럼프는 그동안 수 차례 본인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자랑하면서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
 - 트럼프 2기에서 북한의 핵보유 불용 입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 -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빅딜이 비핵화 관련 알맹이는 빠진 채 보여주기식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 -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이 과정에서 소위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논란의 대상
 - 트럼프-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협상할 가능성이 큼
 -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한국 정부와 협의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정책협약이 상시적으로 작동해야 함

6) 이상현, “상산포럼을 통해 본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내러티브의 이해,”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4-09-24.

7) G. John Ikenberry, “Three Worlds: the West, East and South and the competition to shape glob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100: 1 (2024).

- 하지만 트럼프 측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탐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트럼프의 초대
에 응할지는 미지수 -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깜짝 만남까지 세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실상 북한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음
 - 북한으로서는 현재 포탄 수출과 군대 파병 및 노동자 파견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첨단 군사기술도 획득 가능 -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얻을 이익보
다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 얻을 이익이 더 큰 것으로 추정
 -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력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하게 되면 북·러 관
계의 일정한 이완은 불가피할 전망 -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면 김정은은 북·
미대화 재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⁸⁾
- 만일 트럼프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는 한국내 독자 핵개발 여론을 다시 한번
크게 자극할 것
-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 연구원은 트럼프 승리로 미
국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
 - 대체로 기존의 한국내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일반 국민들의 60~70%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
을지지 - 이에 비해 정책엘리트와 전문가들은 반대 비율이 더 높음
 - 보고서는 만일 트럼프 복귀로 미국우선주의가 강화되면 기존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 핵
보유 찬성 그룹의 90%, 잘 모르겠다는 그룹 83%가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⁹⁾
- 한국은 현재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 상황
- 갈수록 커지는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하여 나라 안에서는 뜻하지 않은 계엄령
파동으로 대한민국호가 좌초될 위기
 - 전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 추세 속에서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
께 견실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계엄령 사태는 한국 민
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 한국이 중시하는 한미동맹의 초석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의미 - 우리
와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들과의 협력을 말할 때에도 반드시 민주주의라는 공통분모를
포함
 - 민주주의는 한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지만 계엄령 사태 이후 한
국이 지정학적 격동기에 국제무대에서 과연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
히 제기될 것
 - 국내정치의 혼란 속에 당장 한미관계 관리에 빨간 불 -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게 우리의 우려와 어젠다를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낭비한 채 트럼프 리스크를 무방비
로 부딪히게 될 상황
 - 계엄령 사태 이후 잠잠하던 북한 매체조차 윤 대통령이 ‘아비규환’ 상황을 자초했다고 비아냥
대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심화를 보도 - 아직 북한이 도발할 징후는 없지만 한국의 정치적

8) 정성장, “북한의 2024년 정세 평가와 2025년 대외·대남 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정세전망 2025-특집
호-제7호] (2024.12.23.).

9) Victor Cha, “Breaking Bad: South Korea’s Nuclear Op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4.

- 혼란은 북한에게 위험한 ‘불장난’을 시도할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국가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발제문 4]

2024년 대북교류협력 현황과 2025년 대응 방향

홍상영 사무총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024년 대북교류협력 현황

1.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와 교류협력 중단

1) 남북관계 재정립

- "북남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

2) 남북협력 기구와 상징 제거

- 대남 기구(6.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등) 해산
- 통일과 민족대단결 등 협력 상징 용어 삭제
- 대남협력 상징물(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 대남 선전 매체(《우리민족끼리》《메아리》 등) 폐지

3) 협력의 구조적 단절

-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도로와 철도 폭파

2. 남한 정부의 교류협력 정책 변화

1) 교류협력 정책 축소 및 규제 강화

- 통일부의 교류협력 부서 통폐합, 관련 조직 및 예산 축소
-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
-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하여 민간 교류 제한

2) 남북협력기금 운영 축소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기능 축소
-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제한적 태도 유지

3.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동

1) 민간 교류협력 위축

- 북한 수재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시도에도 북한의 미응답
 - 2024년 7월 말, 북한 북부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가 발생.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포함한 10개 대북인도지원 단체들 대북 수해지원 추진
- 남북 간 소통 채널 단절로 민간 교류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 상태

2) 통일부의 행정 지연과 소극적 태도

-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에 대한 처리 지연 및 거부 사례 증가
 - 접촉방식을 간접접촉과 직접접촉으로 자의적으로 구분
 - 접촉 목적과 기간 제한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함
 - 접촉 기간 연장 신고는 거부

4. 국제적 환경과 교류협력의 제약

1) 한미일 대북 정책의 영향:

-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 강화로 협력 가능성 감소.
- 북중러 협력 심화로 북한의 국제적 교류 협력 우선순위 변화

2) 북한의 내부 우선 기조

- 자력갱생과 내부 체제 강화에 집중하며 대남 교류 필요성 감소

5. 종합 평가

1) 교류협력의 구조적 단절

- 2024년 현재, 남북 교류협력은 대내외 요인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
- 당국과 민간의 교류협력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진 상황

2) 협력 재개를 위한 과제

- 북한의 협력 필요성 증대와 남한 정부의 정책 변화 필요.
-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남북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 국제사회의 협력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다각적 접근 필요

■ 2025년 대응 방향

1. 비상계엄 사태와 분단체제 인식

1) 비상계엄 선포와 냉전적 사고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종북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
- 이는 분단체제와 냉전체제를 정치적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반복

2)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호연결성

- 분단체제는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
- 대북 적대감 해소와 한반도 평화 구축은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조건
- 한반도 평화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강화되어야 지속 가능

2. 남북협력의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

1) 접근 방식의 재정립

- "접촉을 통한 변화"에서 "변화를 통한 접근"도 함께 고려해야
- 주민 중심의 협력과 상호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모델개발

2) 민간 차원의 협력 강화

- 정치적 의도나 체제 우선이 아닌 남북 주민의 실질적 이익에 초점

3) 2025년, 분단 80주년 시민 중심으로 평화의 문을 열어야

- 89세 노인이 강화 교동도 산꼭대기에서 강 건너 고향마을을 하염없이 바라만 봐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타개해야

3. 남북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제도적 안정성

1) 민주적 기반 강화

-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명하고 일관된 대북 정책 수립
- 남북협력이 특정 정권에 종속되지 않도록 민주적 절차 보장

2) 모순된 법률이 존재하는 문제 해결

- 북한을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 현실의 남북교류협력을 동시에 규제하는 모순을 제도적으로 정리
-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 문제 정리

3) 남북협력의 제도적 일관성

-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협력 정책 유지.
- 협력 정책을 제도화하여 외부 변화에도 지속 가능성 보장

4) 인도협력법 제정

- 북한 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과 협력 사업 제도화
- 법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성과 신뢰성을 증대

4. 평화교육 및 시민사회 역할 확대

1) 평화교육 활성화

- 평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남북 주민 간 신뢰 구축 및 평화적 공존을 위한 공감대 형성

2)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 민간 주도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주도의 한계를 보완
- 시민사회가 평화와 협력의 플랫폼 역할 수행

3) 국제적 연대 강화

-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다자적 접근 유도

5.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구축

1)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
 - 전단살포, 확장기 방송 중단
- 군사 핫라인 재개와 소통 채널 복원

2) 한미 군사훈련의 조정

- 대규모 군사훈련의 강도와 빈도를 조정하여 긴장 완화 시도
-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낮추는 유연한 훈련 전략 채택

[부 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4.12.29.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앞당겨오려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리념과 원숙한 령도력은 국가건설의 각 방면에서 거창한 변천과 활기찬 약진을 펼치며 이 땅의 한해한해를 혁혁한 성공과 승리의 봉우리로 력사우에 거연히 떠올리고있다.

5개년계획수행의 승산을 확정짓는 2024년의 출발선에서 시대와 인민이 부여한 중책에 절대적 헌신으로 보답할 맹약을 영광의 당기에 담아 엄숙히 선언한 당중앙위원회는 명확한 투쟁방략과 전략적인 결단, 드팀없는 집행력으로 극난한 시련속에서도 올해를 확대장성된 성과들로 가득찬 변혁의 해, 도약의 해로 전환시켰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룡성기의 도래와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변하고 흥하는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의 중대한 변화를 눈앞의 현실로 체감케 한 지나온 한해의 영예로운 행적은 당 제8차대회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행과 계속하여 줄기차게 달성될 새 승리를 떠받드는 고무적인 초석으로 된다.

견인불발의 완강한 투쟁과 노력으로 딛고넘어온 무수한 도전의 고비들과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발전공정들을 경과하면서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잡은것은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불변의 신념이고 당당한 자부심이며 오늘의 행복도, 래일의 영광도 그 품에서만 꽃피고 담보된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다.

자기 위업, 자기 리상의 성공적결실을 확연히 내다보고있는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자주, 자립, 자위의 길로 줄기차게 용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하며 보다 큰 승리로 향한 거족적인 전진발전의 힘찬 보무를 열망하고있다.

시련보다 강하고 도전보다 거세찬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으로 전취한 2024년의 괄목할 성과들을 총화하고 우리 당과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2025년의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책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특출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령도실천으로 가장 정의롭고 존엄높은 룡성변영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대표자이시며 주체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 책임일군들,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인민위원장들, 주요공장, 기업소

당, 행정책임일군들, 인민군대 해당 지휘관들이 방청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의 전 방면에서 새로운 변환적국면을 열어놓는 의의깊은 사변들을 이룩하였으며 이는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필수적인 괄목할만한 성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한해 투쟁결과를 총화하는 마당에서 당중앙은 마땅히 성과보다 그것이 세부적이고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결점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해결책을 도출해내는것이 옳바른 태도이고 혁명적인 자세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의 마지막해인 2025년에 당대회결정을 드팀없이 완수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실속있게 세워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5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
2. 당중앙검사위원회 2024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
3.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과업에 대하여
4.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
5.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6.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
7.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5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제10차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제2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비롯한 중요당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이룩한 성과들과 그 과정에 발로된 결함들이 상세히 지적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분투와 변혁의 한해로 자리매김한 2024년의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올해의 주요성과들을 개괄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정치군사분야의 강화발전에 계속적인 힘을 넣어 공화국의 절대적위세를 더욱 상승시키고 자주권수호와 사회주의발전을 확고히 담보하였다.

전당적으로 우리 특유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전체 인민의 애국적열의를 새시대 천리마정신의 창조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가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은 그 어떤 난국도 과감히 딛고 기적을 떠올리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해에 우리당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사에는 또 하나의 전례없는 기록이 새겨졌다.

올해 일부 지역들에서 큰물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당은 적시적인 결심을 내려 방대한 복구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재민들을 수도 평양에 올려다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업을 보장하는 비상체계를 가동시키였다.

이 중대조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잃은것이상으로 위해주고싶은 진정과 성의, 후대육성을 제1의 국사로 내세우는 교육중시의 표시로서 당과 인민의 혈연적紐대를 더한층 두터이 하고 당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공고히 하는 소중한 결과를 낳았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사수와 주권수호의 근본담보인 강력한 자위국방건설에서 사변적인 성과들을 쟁취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결론에서는 극도로 악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단호한 강경대응태세를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전력강화로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억제력의 실체를 과시하고 국방과학기술력의 무한대한 발전잠재력과 현대성, 무시할수 없는 국제적지위를 세계앞에 똑똑히 시위한것을 비롯하여 강군건설위업수행에서 우리의 국방과학 및 군수공업부문이 거대한 활약을 보여준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결론에서는 국가경제전반이 장성추이를 확고히 하고 인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실제적인 결실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압연강재는 127%, 유색금속은 106%, 질소비료는 103%, 전력은 101%, 석탄은 110%, 세멘트는 101%, 통나무는 104%, 수산물은 101%, 철도화물수송량은 108%, 천은 101%, 알곡은 107%로서 살림집건설을 포함하여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들이 성공적으로 점령되었으며 금성프락토르 공장 2단계 개건현대화공사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비롯한 정보보강대상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자립경제의 발전동력과 잠재력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또다시 풍년을 안아오고 관개건설 및 환원복구 2단계 공사가 4월까지 전부 결속되어 농업생산의 물질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였다.

건설부문에서도 수도의 화성지구에 건축미학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발전된 1만세대의 살림집들을 또다시 일떠세우고 검덕지구의 올해 살림집건설과제를 결속하였으며 많은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농촌마을들을 완공하여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열을 안겨주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에서 방대한 큰물피해복구과제가 완수되어 농촌문화도시의 새 변혁상이 펼쳐짐으로써 지방건설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무진장한 자생자결의 힘을 과시하면서도 당원들과 청년들, 인민군군인들을 애국적인 실천투쟁에서 성장시키는 성과를 쟁취하였다.

결론에서는 과학 및 문화분야에서 전인민적인 창조투쟁과 국가부흥발전을 촉진하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결실들을 안아온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중점과제들이 완수되고 기간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의 생산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진일보가 이룩되었으며 교육, 보건, 문학예술분야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었다.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아시아컵경기대회와 월드컵경기대회들에서 련전련승을 기록하고 력기와 탁구, 권투, 태권도 등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에서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확고히 쟁취한것도 올해 총화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지방의 동시균형적발전과 전국인민들의 실제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책정하고 그 완벽한 첫 실체들을 떠올림으로써 전국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창조적의욕과 자신심을 배가해준데 대하여 금지높이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맞다드는 도전과 난관들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당결정을 충실하게 관철함으로써 5개년계획수행의 결정적인 한해를 줄기찬 분투와 애국헌신의 의의있는 창조적, 혁신적성과들로 가득채운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결론에서는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이 미숙하고 건설사업을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일련의 편향과 결점들에 대하여 지적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면서 다음단계의 발전로정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공정을 실속있게 추진하는것을 2025년도 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전반의 장성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속, 화학, 전력, 기계, 석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이 점령해야 할 목표들을 명시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새 년도에도 방대한 건설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리상실현으로 또 한번 비약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2025년에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건설을 추진하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마감하는것과 함께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을 끝내고 농촌살림집건설을 계속 밀고나가며 특히 지방중흥의 대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및 공공시설건설에 힘을 넣으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또다시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에 바다가양식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

결론에서는 산림조성과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며 국가적으로 재해방지사업과 관련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구조용장비들과 구호물자비축 등 재해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큰물경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재해를 최소화할데 대하여 지적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와 구체적실정에 부합되면서도 경제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와 방법, 계획화사업과 가격사업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절실한 방법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 예견된 경제장성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기본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책정하고 추진해온 주요정책적과업들을 더욱 완강하게 내밀어 다음해에는 보다 뚜렷한 성과들을 안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025년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은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것이다.

결론에서는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과학농사를 중시하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집행을 떠메고나갈 인재대오, 사회주의농촌을 변혁시킬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키워내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질제고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초식품과 필수소비품들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책임적으로 집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였으며 수산부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방도들이 명시되였다.

결론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으로의 첫단계 개척투쟁, 변혁투쟁을 결속하게 될 새 년도의 진군에서 과학과 문화전선의 역할증대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과학계가 충분기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마지막돌격전의 승리를 확실하게 안받침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으로 이어놓는 성공적인 결실들을 이루어내야 한다.

보건부문에서는 치료예방사업을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며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도 대처할수 있는 방역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문학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 체육부문이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창조, 위력한 언론공세, 우승의 체육성공으로 시대를 진감시키고 온 나라를 격동시키며 혁명적기세를 앙양시켜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조국의 발전사에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이정표를 세우게 될 다음해 투쟁에서 활력있게 움직여야 할 력량은 근로단체조직들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우리당 청년중심정치에 담겨진 뜻과 의도를 명줄로 간직하고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을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우리 국가의 국제적지위를 제고하고 대외적진지를 공고히 다지는데서 이룩된 성과들과 자주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립지가 급격히 약화되되고있는 현 국제정세의 특징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준엄한 지역정세와 류동적인 국제관계구도변화에 기민하고 령활하게 대응하면서 신성불가침적인 우리 국가의 주권적권리들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전망적인 국익증대와 국위선양의 견지에서 중대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적립장과 투쟁방향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대표적이고 강력한 자주력량으로서의 국제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다.

결론에서는 대외부문에서 당의 대외전략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대외활동으로 우리 혁명에 보다 유리한 대외적국면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적과업들이 제시되였다.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실체이며 미일한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빨력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략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있다.

결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

대외사업부문이 국위선양,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주권적권리수호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익을 존중하는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적극 도모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명시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당군으로, 사상과 기술강군으로 철저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를 군건설의 제1의 전략적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군대를 사상의 힘과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강군으로,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으로 역세게 키우며 특히 투철한 대적의식과 절대불변의 주적관, 철저한 결전의지를 만장약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그리고 변화되는 적들의 전쟁기도와 수행방식에 대처하여 우리 식의 전법연구를 심화시키고 작전지휘의 정보화, 현대화실현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과학적인 훈련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연구적용하여 인민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여야 한다.

민방위부문의 전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도 계속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증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과학기술의 가속적인 진보와 방위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자위적전쟁억제력강화를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다음해의 투쟁은 해당 부문과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조직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의 기능과 활동성을 보다 배가할 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에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더욱 분발하여 제시된 투쟁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특히 전당의 당일군들이 구호《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에 담겨진 참뜻을 다시금 똑똑히 새기고 당중앙의 뜻대로 인민을 위한 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앞으로도 류레없이 극난한 형세는 지속될것이지만 건국 이래 미증유의 새 변혁시대를 열어온 올해의 격렬한 투쟁행정에서 찾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 더 백배해진 자신심과 주체적힘은 우리가 목적인바를 반드시 빛나는 성취에로 추동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보다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을 두어깨우에 억척같이 걸머지고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2025년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신심드높이, 더욱 과감하게 투쟁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당의 당원들과 전국인민이 충성과 애국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력으로 떠올린 2024년의 영광을 2025년으로의 계속적인 발전과 성공으로 빛나게 이어놓고 국가부흥의 역사적진군을 비상히 가속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방략들이 뚜렷이 명시된 김정은동지의 결론에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결론은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으로의 장엄한 려정을 시작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투쟁목표의 완벽한 실행을 과학적으로 담보하고 거폭적인 확대에로 끊임없이 승화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실천강령이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당중앙검사위원회 2024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해당 의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새시대 당규률건설로선관철과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언급되고 각급 당검사위원회들에서 발로된 편향적문제들이 엄정하게 지적되었다.

전원회의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2024년도 사업정형에 대해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중대한 정치적문제로,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간주하고 최우선적인 혁명과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전국의 인민들에게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족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제공하며 모든 지역의 발전수준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 창당 이래,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사변적인 결단이며 전례없이 방대한 창조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도전과 난관이 의연 엄혹하고 이제 남은 5개년계획수행기간에 추진,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 아릅찬것임에도 불구하고 근 80년간 리상으로만 되여온 지방변혁의 중장기과제를 단연코 정책화하여 지체없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한것은 그야말로 새 력사를 창조하는 일대 혁명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러한 거대한 변혁적로선, 지방발전의 실천강령을 확정하고 손색없는 실체로 옮겨놓는데는 정말 쉽지 않은 숙고와 용단, 분투가 요구되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흥시키는것은 전면적발전으로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전략과업인 동시에 당과 정부의 기본정치리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고 발양하기 위한 절박한 정치적과제로도 된다고 언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1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매해 20개의 시, 군들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속속 일떠세움으로써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지방발전정책실현의 전위에 선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존엄과 군대의 명예를 걸고 비상한 책임감과 량심으로 일관된 백방의 노력을 건설의 완벽한 질적보장에 기울임으로써 지방중흥의 첫 산아인 새 공장들을 우리 시대의 사상과 국력, 문명의 높이에 상응한 창조물들로 손색없이 일떠세웠으며 기계, 건재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자재와 설비, 기술보장을 담당한 여러 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도 건인불발의 완강성과 창조력을 발휘하여 생산과제수행과 연구개발사업에서 귀중한 결실들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동해안의 신포시에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으로 되는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가 건설되어 바다를 끼고있는 시, 군들이 자체로 살아나갈수 있는 훌륭한 경험을 창조하고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과 장성을 이룩할수 있도록 적극 도모하고 추동하는 사업들도 각방으로 추

진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첫 산아들이야말로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스러운 우리 투쟁의 결실이며 그 무엇에 비길데 없는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변영의 증명이라고 하시면서 비록 당과 정부앞에 일감이 배가되고 걸머진 중하는 더 무거워졌지만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비상히 상승, 확대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은 획기적전진의 새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시, 군들마다 몇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세우는것만으로는 지방에 남아있는 세기적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지속적인 발전경도우에 올려놓기에 불충분하고 부족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고 전국의 시, 군들에 보건시설과 복합형문화중심, 량곡관리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건설하기로 한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3대필수대상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구체적인 건설방향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 단계에서 상기 건설대상들을 정확히 실용성있게 완성하고 원만히 운영할수 있게 하여야 지방발전의 근간을 확실하게 세울수 있으며 시, 군들이 동시에 변모되고 부흥하는 활기찬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량곡관리시설까지 병행하여 건설하는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정식 포함시킬것을 전원회의에 제의하시였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동지,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정남동지가 토론에 참가하였으며 여러 부문 간부들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지방의 세기적락후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가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실행대책들이 뚜렷이 명시된 지방발전대강에 절대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지방발전에서 필수적인 선진적보건시설과 복합형문화거점, 일체화된 량곡관리시설을 지방공업공장들과 병행하여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고생을 천분으로 여기시고 만짐우에 만짐을 덧놓으시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결행하실수 있는 중대국사이며 력사적대업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지방의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힘있게 견인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완벽한 실행을 철저히 담보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해당 의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지난 8월 교육사업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제1의 국사이라고 하시면서 수해지역의 학생들모두를 평양에 데려다 공부시키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고 몸소 4.25려관에 꾸려진 립시교실들을 찾으시여 새 학기 교육준비정형을 료해하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은 우리모두에게 학생교육문제, 교육조건보장문제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대하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현시기 우리 나라를 인재강국,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전반적인 교육토대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을 전원회의에 제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넷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이라고 하시면서 교육진흥의 선차성과 필수성, 그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8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에 따라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고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이 강구되고있으며 교육자후비들을 전망성있게 키우는것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이 일관하게 집행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자부할만한 질적변화들도 가져왔지만 전반적인 교육토대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교육부문의 현 실태를 엄밀하게 분석하시고 교육토대강화를 위하여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적힘을 투하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하고도 중장기적인 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국가건설을 목표로한 이상 우리는 학용품과 교구비품, 교육기자재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사업조건, 학습조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확고히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 상기의정을 특별히 상정시킨 의도와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교육토대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실행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토대강화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학교개건현대화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드팀없이 강하게 밀고나가며 앞으로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일신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결론에서는 보통교육부문에서 기초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교육자들의 자질을 제고하여 교육부문을 전반적으로 추켜세우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일데 대하여서와 국가적으로 장애자들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교육부문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고 사람들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교육사업은 마땅히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되여야 하며 오늘 우리 혁명실천은 교육지원사업에 더욱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당과 혁명의 전도, 조국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책임지려는 일꾼이라면 교육문제해결에 항상 주목을 돌리며 크든작든 자기 소관으로 떠맡아 풀어나갈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진흥에 국가의 전면적부흥, 지방중흥과 농촌진흥의 줄기참과 양양함도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창조와 변혁의 진폭이 커질수록, 부과된 혁명과제가 거창할수록 교육을 항상 선차에 놓고 우선권을 부여할것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가적지원과 투자를 계속 늘여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다섯째 의정토의와 관련하여 전원회의는 국가예산심의조를 조직하여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을 검토, 심의하기로 하였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하였

다.

전원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정명수동지, 윤정호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하였으며 노광철동지, 리히용동지, 송준설동지, 강명철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하였다.

김조국동지, 김영복동지, 권성환동지, 리만수동지, 김성빈동지, 전룡남동지, 황영길동지, 리종식동지, 신창길동지, 윤치결동지, 홍길호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리영길동지, 최선희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하였으며 노광철동지, 김정관동지, 리히용동지, 최동명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직접 보선하였다.

방두섭동지, 김철원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박태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을 해임 및 선거하였다.

최동명동지, 김덕훈동지, 리히용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노광철동지, 방두섭동지, 김정식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리히용동지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룡동지, 김형식동지를 당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명철동지를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리히용동지, 김덕훈동지, 김재룡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해임 및 임명하였다.

김철삼동지를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하였다.

내각총리와 내각의 일부 간부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박태성동지를 내각총리로 임명하였다.

김정관동지를 내각부총리로, 권성환동지를 자원개발상으로, 김영식동지를 상업상으로 임명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의정토의에서 하신 말씀과 강령적인 결론들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2025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2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협의회들에서는 결정서초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에 기초하여 올해의 투쟁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토의되었으며 이 과정에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4차 정치국회의가 12월 27일에 소집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 종합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결정서초안들을 수정보충하여 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가예산심의조가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한 정형을 검토하고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조용원동지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5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와 《새로운 지방발전전략실행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길데 대하여》, 《나라의 교육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다음해는 우리 당이 창건 80돐을 맞이하는 의의깊은 해인 동시에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대앞에, 인민앞에 총화짓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개혁과 약진의 4년간을 초월하는 비상한 슬기와 용맹, 책임적인 노력과 줄기찬 분투로 임기의 마지막해인 2025년을 우리당 령도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의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총분기하여 기적적성과들을 쟁취함으로써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떳떳하게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4년 12월전원회의는 수천만 인민들의 크나큰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정책관철의 제1서렬, 제1전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직책상임무에 끝까지 충실할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비등된 열의속에 자기의 책임적인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혁명강령의 완수를 위한 중대한 분투의 직선주로에 나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전원회의앞에 무조건적인 집행을 다짐한 혁명과업들의 무게를 되새겨보면서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 진함없는 열정과 투신력으로 2025년을 더 높은 발전단계에로의 상승국면을 마련하는 경이적인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여갈 엄숙한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는 가장 정의로운 리상과 원대한 포부를 안고 용진

하는 우리 위업의 전망성과 잠재력에 대한 낙관을 백배해주고 자존, 자력의 불가항력적힘으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룡성기를 과감히 당겨오기 위한 역사적인 진군에 거대한 박진력을 더해준 의의 깊은 계기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